

## 65세 이상 고령자 60% “노후 생활비 직접 마련”

노후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한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지난해 사상 처음 60%를 넘어섰다. 또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혼과 재혼이 모두 줄어들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혼과 재혼 건수는 동시에 증가했다.



비는 올해 19.6명에서 2060년 82.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한다. 유소년인구(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도 2016년 100.1명을 기록한 뒤 올해 110.5명까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7일 '경향신문'이 한국의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1.8%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또는 친척 지원' (25.7%), '정부 및 사회단체' 등의 순이었다. 생활비를 부부가 직접 마련한다고 한 응답자가 6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11년 51.6%였음을 감안하면 6년 사이에 10.2%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응답 비율은 증가 추세이며,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응답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0~74세 고용률은 33.1%로 유럽연합(EU) 28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은 한국의 고용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EU 국가보다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높은 것은 노후 생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늘어나고 출산율은 낮아지면서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노년부양

65세 이상 인구에서 이혼과 재혼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65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이혼 건수는 각각 6,883건, 3,427건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12.8%, 17.8% 증가한 수치다. 전 연령대의 이혼 건수는 2016년 10만9,153건에서 지난해 10만6,032건으로 줄어든 데 비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혼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재혼 건수는 각각 2,684건, 1,202건으로 전년보다 4.5%, 8.4%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혼 건수는 남녀 모두 '이혼한 뒤 재혼'이 '사별한 뒤 재혼' 보다 많았다.

## 인천공항 입국장서 면세쇼핑 가능해진다

이르면 내년 5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한국 입국 때도 면세 쇼핑이 가능해진다.

지난 2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여행객의 쇼핑 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간 논란이 됐던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세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5월 인천공항 입국장에 우선 도입해 6개월 간 시범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2020년부터 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은 판매 물품에서 제외되며 1인당 총 판매 한도도 현행 600달러로 유지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해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입

국장 면세점 설치에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직후부터 논의가 돼 오다 2003년 처음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6차례에 걸쳐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국민 다수는 찬성했지만 조세 형평성 등을 내세운 정부 일각의 반대와 가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 항공사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 대기업 등의 반발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날 발표로 약 15년간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기획재정부 측은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는 내국인을 차별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시시비비가 많았지만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관련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1인당 구매 한도 유지와 담배 제외 등 여러 제약 사항들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면세점 업계는 임대료 인하 등 세밀한 정책적 지원 없이 입국장 면세점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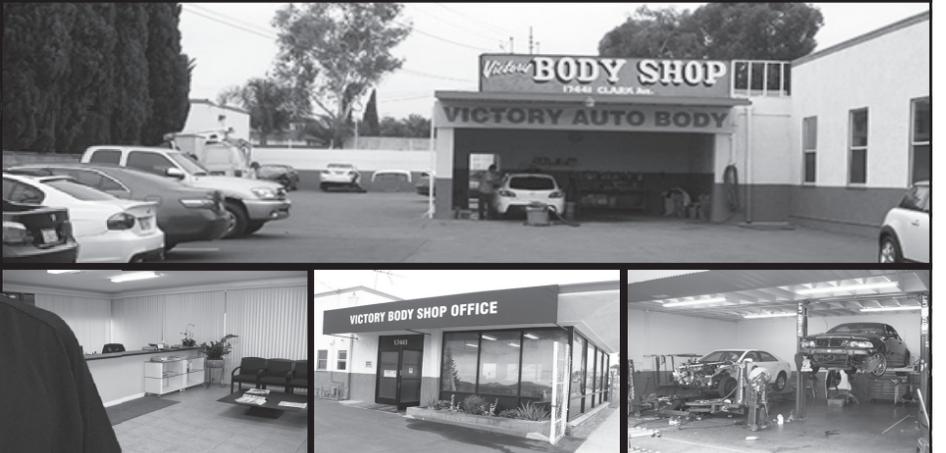
#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